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미국 LA의 산타모니카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게티 센터' (The Getty Center)가 있다. 지난 1966년 유전(油田)을 통해 미국인 최초로 10억 달러의 오일머니를 벌여들인 J. 폴 게티(1892~1976)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다. 수십 년간 모은 게티의 방대한 미술품과 기부금을 모태로 미국인들의 문화적 허기를 달래 주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하지만 생전 게티는 칼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구두쇠였다. 수천 평의 대저택에서 살면서도 전화 요금을 줄이기 위해 거실 한 쪽에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줄 정도였다. 지난 2018년 개봉된 영화 '올 더 머니' (All of the money in the world)는 돈 앞에서는 천룡도 저버리는 비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통 큰 기부로 탄생한 게티 센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그는 1973년 자신의 열여섯 살 손자를 유괴한 인질범들이 몸값으로 1700만 달러(약 186억 원)를 요구하자 "내가 인질범에게 돈을 보내면 다른 손자들도 위험하다.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건 어렵다"며 꼼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한 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17세기 네덜란드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품은 주저 없이 사들인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게티는 추악한 기업인으

은편칼럼



박현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전 카트만두대학교 객원교수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를 넘긴 노인이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노인 인구의 약 1.6%가 100세 장수할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는데 곧 두 번째 환갑도 낳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치매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돌봄이 개인과 가족 단위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요즘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요양보호사는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등급 판정을 받은 주로 65세 이상 장기 요양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월 남짓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국가인(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취업 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과 국고 지원 외에 일부만 대상자가 부

기고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무수히 날아드는 총알을 피해 숨어 있던 필자의 선배 문용동은 헬기에서 들리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정도 총소리가 멈추었기에 안심이 되어 문을 나가는 순간이다. 자동으로 쏘아 대는 총에 맞아 사망했다. 문용동 가슴에 조준 사격 세 발로 광주 민중항쟁 마지막 날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다. 선배 문용동은 사람을 사랑하고 실천했던 신학도다. 그는 예수 정신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던 전도사이기도하다.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그 군화발이 5월의 영령들이 누워 있는 곳으로 왔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참배를 했다. 일정을 변경하면서 참배를 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참히 군화발로 짓밟았던 3공수, 7공수, 11공수 등 특

'이건희 컬렉션' 이 쏘아 올린 공

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의 통 큰 기부로 탄생한 게티 센터 덕분에 유럽에 가지 않아도 세기의 걸작들을 LA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21년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컬렉션은 척박한 기증 문화의 풍토를 바꾼 쾌거다. 광주시립미술관 30점, 전남도립미술관 20점을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들에게 2만 3000여 점의 방대한 미술품을 기증한 예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건희 컬렉션'이 지닌 가치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였다는 점이다.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부터 클로드 모네의 '수련'까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컬렉션들을 국공립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전에도 전국 각지에서 18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삼성가의 기증으로 '그림의 땅'이었던 이종섭 화백의 작품 여덟 점, 한국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김환기(1913-1974)의 작품 다섯 점을 품에 안은 호사를 누리게 됐다. 한 해 작품 구입 예산이 7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립미술관이 만약 지난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73억 원에 낙찰된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의 '05-IV-71 #200(Universe)'을 구입하려면 10년치 예산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기증이 공립 미술관에게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증받은 미술품들이 있다. 다만 이날 '하정웅 컬렉션'이다. 지난 1993년 재일교포 사업가인 영암 출신 하정웅(83) 씨가 평생 수집한 212점을 필두로 여섯 차례에 걸쳐 2603점을 기증했다. 이는 시립미술관 컬렉션 5385점(2022년 12월 기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이후환·곽인식·손아유·전화환·조양규·오일 등 재일 한

국인의 인권과 휴머니즘을 다룬 작품들은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럼에도 하정웅 컬렉션을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립미술관의 브랜딩은 미흡하다. 지난 2017년 하정웅의 이름을 딴 '하정웅 미술관'이 개관해 그나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차렸지만 기증 당시 약속한 연중 상설 전시와 대중에 널리 알리는 '전국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정웅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제2의 '하정웅 컬렉션' 나오려면

하정웅 컬렉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국구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서너 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고작 학예사 한 명만이 배치돼 있다. 게다가 하정웅 컬렉션 등을 연구하는 '아시아 디지털아트 아카이빙 플랫폼'이 올 9월 완공되지만 필요한 인력 운용 계획은 아직 없다. 비슷한 시실인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연구팀이 학예사 다섯 명 등 11명(시간제 인력 포함)을 배치해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침 올해는 1993년 시작된 하정웅 컬렉션이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번 컬렉션으로 국공립 미술관의 수장고도 풍성해졌듯이 하정웅 컬렉션은 척박한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방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지닌 공립 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증 미술품에 대한 브랜딩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정웅 컬렉션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증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지역의 컬렉터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이유다. 뜻있는 기증자들이 늘어남수록 미술관의 컬렉션은 화려해진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고령사회와 요양보호사

담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첫째 신체 활동 지원으로 식사, 목욕 도움, 누워 지내는 환자들의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이나 배뇨·배변 도움 외에 거지거 교환 등을 한다. 둘째,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청소·세탁이 주를 이루고 셋째,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는 산책·병원 동행·일상 업무 대행 등이다. 또 말벗, 이메일·편지 대필, 생활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거동이 불편하고 뼈가 약하여 골절 위험성이 큰 노인들을 돌보는 데는 세심한 주의와 따뜻한 심성, 어느 정도의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난 1월 초부터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 시간씩 총 240시간 이수하였다. 매일 8시간의 강의를 듣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단 한 번의 결석이나 지각도 없이 6주간 완주하였다. 노인, 특히 치매 환자 돌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기 강의를 듣고 실습을 통하여 위기 상황 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국시원에서 보내온 자격 시험의 합격 통지 일련번호는 160만을 훌쩍 넘었다.

이렇듯 자격증 소지자가 많고 구인 광고가 넘쳐나는 데도 취업하는 이는 많지 않다. 가족을 돌보고 일정 비율의 요양보호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는 교육 자체가 유익하기에 취업과 무관하게 수강하고 자격증

을 취득한다. 어떤 이들은 짧은 기간 취업했다가 그만둔다. 막중한 책임 업무에 비해 보수가 최저 임금 수준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이 요양 돌봄 외에 텃밭 일, 대청소, 김장이나 잔치상 차림을 요구하는 등 파충부처럼 대해서 마찰을 빚는다. 남성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도 있다.

최근의 출생률 급감은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통폐합과 폐교로 나타나고 유치원과 학원 등은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 맞벌이하는 젊은이, 초로의 자녀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없는 노부모를 전담하여 돌보는 어렵다.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재가 요양 복지, 요양시설 입주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기존 역할의 일부이다. 즉 개인활동 지원서비스의 병원 동행만을 떼어서 '병원 동행 매니저'라 부르고 대상자와 함께 병원 오가는 일, 병원 내에서의 돌봄으로 한정한다. 비교적 수월하고 보수도 좋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만 명 이상의 미취업 요양 보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며 초고령사회를 향한 대안이다.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전사 예비역들의 단체다. 광주 학살을 통해 전두환 정권 장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특전사 사령관 초대 회장이 바로 정호용이다.

더군다나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 선언문에서는 "당시 계엄군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기막힌 일이다. 가해자였던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두 단체가 특전사 동지회가 합의한 행동강령에 계엄군의 행위에 대한 사과는커녕 반성도 없다. 가해자인 계엄군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며 또 다른 5·18 역사 왜곡 답론이다.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저지른 학살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다. 단순한 공격 임무 수행이라는 것은 당시에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은 물론 43년이 지난 오늘 그것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광주 민중항쟁 43년 지난 오늘까지도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만약엔 임산부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을 쏘았다. 심지어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는 여고생에게 조준하여 총을 쏜 것이다. 이처럼 초·중학생에게도 무차별하게 총을 쏘고, 도망가는 고등학생의 뒷머리를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

시위도 하지 않고 길 가던 시민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다. 대검으로 찔렀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라고 물었다. 오월의 노래가 근거 없이 부른 노래가 아니다.

그동안 전두환 신군부 퇴진과 오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피를 쏟았는지 부린 것을 역사는 알고 있다. 43년이 지난 지금도 5·18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는 물론 광주 시민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여전히 트라우마와 함께 가슴을 찢어내는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는 학살자들이 생존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사죄를 하면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히 광주학살의 죄를 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양심 고백과 처절한 성찰·참회·반성이 나오길 고대한다. 과연 문용동 선배를 비롯한 5월의 영령들이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서'를 기뻐할 것인가? 하늘에서 통곡할 것이다. 선배는 1980년 5월 27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다. 생명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순교한 것이다. 선배는 물론 오월의 꽃들이 '아직은 아니다.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어설픈 화해와 용서는 가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社說

다시 도진 '5·18 망발' ...극우 본색 드러내나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고 밝힌데 이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기관의 장은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5·18을 폄하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장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임명 전후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과거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에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 전광훈 목사

로부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가 '(윤 대통령이) 전라도에 립서비스한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언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허위로 판명됐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의 장이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극우 보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윤 대통령 공약을 입법립으로 치부하며 극우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의 원들이 있던 망언으로 5·18 정신과 희생자들을 유린해 흉역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에 대한 막말과 혐오의 정치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두 사람에게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고 위험 노후 도시시설 정비 대책 서둘러야

지난달 12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덕남정수장 수돗물 유실 사고는 30년 이상 된 밸브 고장 때문이었다. 11년의 사용 가능 기간(내용 연수)을 세 배 가까이 넘겨 사용하다 최악의 가뭄 속에 수돗물 유출과 단수 사고로 이어졌다.

이처럼 광주의 도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은 물론 아스팔트 도로와 도시철도 차량 등 공시설물까지 낡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 세대(44만 8722세대) 기준 53%, 30년 이상은 19%에 달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13만 8328동)도 20년 이상이 72%, 30년 이상은 55%에 이른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화재나 누전, 붕괴 사고 등에 취약하다.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옥상에는 2만 2900V의 고압 변압기가 20년 넘게 가동되고 있다.

도심 도로와 도시철도(1호선) 차량 등 공공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아스팔트 도로는 개설 이후 덧씌우기만 반복하다 보니 곳곳에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3년간 정비한 포트홀만 4만 5000곳에 달한다. 도시철도 또한 운행 중인 차량 23대 중 13대는 2002년식이고, 나머지 열 대는 2006년식이다. 검사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노후화는 정수장 수돗물 유출 사고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은 민선 8기 들어 도시 노후화 해결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내놓으며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도 예산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전반의 노후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베리코'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육되는 스페인 고유 혈통 돼지 품종이다. 폴과 도토리, 곡물 사료 등을 먹여 키우는데, 사육 기간과 방식, 먹이에 따라 '베요타'와 '세보 데 캄포' '세보'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베요타의 경우 자연 방목으로 사육하며,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라 생성된 특유의 풍미가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인기다. 그런데 이베리코 베요타가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면서다. 건조한 기후 후로 도토리가 흉작인

위험받는 식탁

위험받는 식탁. 가뭄·폭염·태풍·홍수 등을 겪으면서 도토리를 비롯한 각종 농업 생산품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는 이베리코 돼지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표 작물 와사비도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따른 재배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매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 와사비 생산량은 2005년 4600여 t에서 2021년 1800여 t으로 감소했다. 머스터드(겨자)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도 이상기

후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전 세계의 겨자씨 80%를 생산하는 캐나다 엘버타 등은 가뭄으로 지난해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스리라차 소스의 주 재료인 할리페노 고추의 원산지 멕시코도 3년 가까이 가뭄을 겪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커피도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 브라질은 그동안 가뭄을 겪어오다 지난해 7월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원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구촌에 불어닥친 해 가뭄·폭염·태풍·홍수 등을 겪으면서 도토리를 비롯한 각종 농업 생산품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는 이베리코 돼지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표 작물 와사비도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따른 재배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매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 와사비 생산량은 2005년 4600여 t에서 2021년 1800여 t으로 감소했다. 머스터드(겨자)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도 이상기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publication details.